

Market Trend of OPP Film & CPP Film

국내 OPP 및 CPP 필름 수급동향

Writer

(사)한국포장협회

Contents

- I. 국내 포장용 필름시장 현황
- II. OPP필름 수급 동향
- III. CPP필름 수급 동향
- IV. 결론

I. 국내 포장용 필름시장 현황

포장용 필름은 식품산업에서부터 문구, 의류, 의료, 건설, 전기 및 전자, 정보통신산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쓰이는 포장 재료써 특히 식품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현재 포장용 필름산업은 몇 년간 지속된 세계 및 국내 경기의 침체, 저가의 중국산 필름유입 등으로 인하여 어느 해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OPP필름은 포장재 중에 가장 널리 이용되는 포장재료써 셀로판에 필적하는 광택과 투명성, 우수한 내약품성, 내열성, 내방수성으로 식품포장에서 문구, 테이프, 인쇄물 등 연포장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구성이 우수하다.

포장용 필름산업은 여타의 산업전반에 걸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포장용 필름산업에서 특히 식품포장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해 식품산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하여 성장이 둔화된 양상을 띠고 있으나 경기가 어려워도 소비수요가 크게 변하지 않는 식품산업 특성과 '웰빙문화'와 건강을 중시하는 식품들이 나오면서 이에 걸맞은 다양한 포장재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포장용 필름산업은 식품산업의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장단기적으로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데 국제원유가의 변동과 국제금융시장의 변화로 인한 세계 경기의 흐름 등 예측할 수 없는 경기변수들로 인하여 불규칙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포장용 필름산업은 중소기업에서부터 대기업에 이르기

까지 많은 기업들이 진출해 시장점유를 위하여 기업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 실물경제 하락 및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실수요 감소가 커질 것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신제품의 개발, 신규 수익성 시장의 탐색 등을 통한 새로운 시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포장용 필름산업은 업체 간의 경쟁과 저가의 중국산 필름 유입으로 인한 공급과잉 등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의 시장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며 지속적인 신제품개발과 신규시장의 개척 및 안정적인 거래선의 확보를 위한 필름업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수년간 국내 시장에서의 다양한 악재로 인해 수요가 줄어들고 가동률이 떨어지고 외국제품의 급속한 유입으로 필름 생산업체들은 힘든 시간이 거듭되고 있다.

포장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온 필름업체는 최근 상황을 바닥으로 보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주변상황이 녹록치 않아 침체의 끝을 가늠하기 어렵고 경기호전에 대한 전망 역시 어려운 상황이다.

포화된 내수시장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외국기업들도 자국 시장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고 있고 자국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정책과 마케팅을 펼쳐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원료를 100% 수입하고 주변 국가들의 경기흐름, 환율변동에 따른 제품가격 변화에 민감하여 내수는 물론 수출 시장에서도 힘든 상황이다.

국내외적으로 경기 상승을 저해하는 불안한 요소가 많아져 갈수록 어려움이 지속돼 이대로라면 포장산업을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필름업체의 이 같은 요인은 경기불안에 대한 소비위축과 경기활성화와 수출기대감으로 증설한 설비투자로 공급과잉이 일어나 수요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상생을 위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견딜만한 충격이겠지만 설비를 가동하고 판매를 위한 경쟁이 지속되면 모두가 힘든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필름설비 가동상 생산설비의 가동을 중단하면 엄청난 손실이 따르게 되지만 실제 몇몇 업체에서는 전체 설비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II . OPP필름 수급 동향

연포장 시장의 대표적인 원자재인 OPP와 CPP필름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에도 과잉설비로 인해 제 가격을 받지 못해 경영수지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

국내 최대 OPP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대림산업(주)은 3개라인에서 40,000톤의 생산능력을 갖고 있지만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출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생산량을 늘렸지만 수출의 확대는 물론 내수시장마저 감소하여 이중고를 겪고 있다.

수출이 줄다보니 내수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내수가 27,000톤, 수출이 10,000톤으로 2015년 조사와 비교해 보면 내수와 수출 비중이 뒤바뀐 현상을 보이고 있다.

(주)삼영화학은 라인을 2개로 줄인 1,500톤의 생산능력이

〔표 1〕 OPP 필름 생산판매 현황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대림산업(주)	3	40,000	10,000	27,000
(주)삼영화학	2	15,000	360	12,000
울촌화학(주)	2	46,800	1,800	32,400
JK머티리얼즈(주)	1	12,000	0	11,000
(주)필맥스	3	25,000	2,400	15,600
(주)화승인더스트리	3	25,200	4,200	12,000

있지만 내수 12,000톤, 수출 360톤으로 생산능력과 매출이 현저히 줄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울촌화학(주)은 2개 라인에서 46,800톤을 생산할 수 있어 최대 생산능력을 갖추고 내수 32,400톤, 수출 1,800톤으로 약간의 감소를 보여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침체로 인한 수요량 감소를 만회하고자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이마저 어려

워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화승인더스트리는 3개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만 2개 라인에서만 생산하여 25,200톤의 생산능력이지만 내수 12,000톤, 수출 4,200톤으로 물량 감소를 보이고 있다.

(주)필맥스도 3개 라인의 생산능력이 25,000톤이지만 실제 2개 라인에서만 생산하여 내수 15,600톤, 수출 2,400톤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JK머티리얼(주)는 1개라인

12,000톤 생산능력을 갖고 내수만 11,400톤을 소화해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라인을 줄이고 생산능력을 축소시켜 공급물량을 줄이면서 위기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외국업체들의 저가공세가 강해 내수에서 방어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하고 유럽 및 미주지역으로 진출도 만만치 않아 핫한 여름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술과 품질 우위를 통한 수출 전략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Ⅲ. CPP필름 수급 동향

CPP필름 역시 OPP와 같은 상황으로, 수요 감소에 따른 생산량 조절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내외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다.

삼민화학공업(주)가 3라인에서 17,000톤으로 생산능력을 늘려 전 물량을 내수로 소화하고 있어 수출을 위한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삼민은 이전 수출지역을 중심으로 수출선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여



[표 2] CPP 필름 생산판매 현황

(단위 : 톤/년)

업체명	라인수	생산능력	공급량	
			수출	내수
삼민화학공업(주)	3	17,000	0	17,000
(주)에스피씨팩	4	14,500	300	14,200
(주)유상	6	15,000	520	8,700
울촌화학(주)	1	12,000	600	10,920
(주)필맥스	2	12,000	-	8,400

의치 않아 아직 수출선 확보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삼영화학은 1개라인의 가동을 중지해 CPP사업을 하지 않고 있어 다른 업체들에게는 숨통이 풀어졌지만 실제 생산물량이 많지 않았던 터라 큰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에스피씨팩은 4개라인으로 증설하고 생산능력도 14,500톤으로 늘려 내수 14,200, 수출 300톤으로 수출은 줄고 내수를 늘렸다. 계열사 물량 확보와 새로운 필름 생산과 연계한 공급전략이 효과를 보이고 있지만 수출물량에서는 감소하고 있다. (주)유상은 6개라인에서 15,000톤으로 생산능력을 조금 줄였으며 내수 8,700톤, 수출 520톤으로 내수를 늘리고 수출에서 크게 감소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시장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마저 줄고 있어 물량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나마 내수에서의 자체물량이 있어 보완하고 있지만 내수에서의 물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은 여타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울촌화학(주)도 생산능력을 12,000톤으로 늘려 내수 10,920톤, 수출 600톤으로 내수와 수출에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호전되었지만 이는 다른 업체들보다 많은 자체물량과 적극적인 수출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필맥스는 2개라인에서 12,000톤의 생산능력을 보이고 있으나 내수에서만 8,400톤을 판매해 수요 감소로 인한 생산물량을 조절하고 있다. 필맥스 역시 이전의 수출물량이 줄어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필름판매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이는 국내 업체들 모두에게 해당되고 있어 수출선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IV. 결론

필름업체들은 내수에서의 물량감소와 해외시장에서의 경쟁에서 동남아 저가제품들의 공세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름업체들의 어려움은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쳐 갈수록 수지가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과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수요 감소로 인한 과당경쟁과 외국제품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피해 등은 풀어야할 숙제이다.

이 문제들을 풀어줄 획기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는 한 국내 경기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주변국들의 변화가 우리 업체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야 지금의 어려움은 풀려나갈 것이다.

그동안 설비과잉과 상반기 원료가 상승으로 수익악화가 진행되었고 원료가 상승에도 유저들의 가격인상 반영은 일부만 이루어져 필름업체들이 떠안아야 하는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국내 업체들만이라도 출혈 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때이다. [PW]